

KIA 'V12' 카운트다운



최종전 이후 짧은 휴식을 보낸 KIA 타이거즈가 지난 4일 챔피언스필드에 소집돼 한국시리즈 준비에 돌입했다. 사진 왼쪽은 제임스 네일이 부상 후 첫 라이브 피칭을 소화하는 모습. 오른쪽은 수비 훈련에 앞서 선수단이 미팅을 하는 모습.



야간 훈련·연습경기 등 한국시리즈 모드에 돌입 네일 "준비는 됐다" 라이브 피칭하며 KS 기대감 김호령 부상 낙마 속 내야 등 '30인' 엔트리 경쟁

KIA 타이거즈의 'V12'를 향한 도전이 시작됐다. 2024시즌 정규시즌을 9경기 차 1위로 마무리한 '챔피언' KIA는 3일간의 휴가를 보낸 뒤 지난 4일 '한국시리즈 체제'로 전환했다. 4·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기술 훈련을 하면서 워밍업에 나선 KIA는 6일 휴식일 이후 7일에는 오후 6시부터 야간훈련을 갖는다. 8일 오후 훈련 뒤에는 9일 상무야구단과 연습경기를 치른다. KIA는 14일에는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실전 점검을 하고, 16일 자체 연습경기를 통해 마지막 리허설을 진행한다. 훈련과 연습경기를 통해 KIA는 본무대에 맞춰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 계획이다. 이범호 감독은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본무대 집중을 예고했다. 엔트리 경쟁도 전개된다. KIA의 훈련에는 투수 16명, 포수 3명, 내야수 9명, 외야수 7명 등 35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있다. '수비의 달인' 김호령이 선수단 명단에 포함됐지만 복사근 부상을 당하면서 훈련에서 제외됐고, 내야에서는 윤도현과 김두현 등 신예 선수들이 경쟁에 나서게 됐다. KIA는 훈련에 참가한 35명의 선수 중 30명을 한국시리즈 엔트리에 넣을 방침이다. 외야에서 부상 변수가 발생했지만 마운드에서는 네일이 라이브 피칭에 나서면서 부상 복귀를 알

렸다. 네일은 지난 4일 마운드에 올라 라이브 피칭을 소화했다. 8월 24일 부상 이후 처음 타자들을 마주한 네일은 2세트로 나눠 각각 18구, 15구를 소화하면서 컨디션 점검을 했다. 네일의 피칭에 중점을 두고, 타자들은 방망이는 휘두르지 않고 타석에서 공만 지켰다. 이범호 감독은 물론 타석에 들어가지 않은 타자들 도 네일의 라이브 피칭을 보기 위해 그라운드로 몰려나오면서 시선이 마운드에 쏠렸다. 네일의 스윙퍼가 춤을 출 때마다 지켜보던 이들의 입에서는 감탄사가 나왔다. '주인공' 네일은 "다시 마운드에 오를 수 있었어 정말 행복하다. 타자들을 세우고 마운드에 오를 수 있어서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된 것 같다. 몸상태도 좋고 턱도 잘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며 "모든 구종을 던져보려고 했다. 구속도 좋았고, 공을 스트라이크존에 넣으려고 했는데 커맨드도 좋았다. 만족한다"고 라이브 피칭 소감을 밝혔다.

이날 네일은 최고 구속 149km를 찍었다. 네일은 "타자들을 세우고 공을 던지니 경기 느낌이 조금 집중할 수 있었다. 한국시리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응성거림 속에서 공을 던져야 하니까 이런 연습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예상보다는 빠른 속도로 한국시리즈를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KIA는 마운드 싸움에 큰 힘을 얻게 됐다. 네일도 기다렸던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힘을 내고 있다. 네일은 "한국시리즈를 뛰는 생각을 하고 상상을 많이 하는데 정말 기대가 된다. 정규시즌 주말 밤에도 정말 많은 팬이 경기장을 찾아주셨는데 한국시리즈에서는 더 많은 응원을 받게 될 것이다"며 "어렸을 때부터 큰 무대에서 중요한 경기를 던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 나도 팀도 준비가 됐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타자들도 든든한 선발의 귀환에 반색했다. 타석에 들어가기를 자청했던 소크라테스는 "매우 좋았다"고 감탄사를 내뱉었고, 역시 타석에서 직

접 네일의 공을 지켜 본 김두현은 "말이 안 나온다. 스윙퍼가 살벌하다. 정말 못칠 것 같다. 많이 놀랐다"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관람객' 김도영도 "네일이 던지는 것을 뒤에서 처음 본 적 같다. 스윙퍼가 정말 좋았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제임스 네일은 9일 연습경기에서 2이닝을 소화할 예정이다. <훈련 참가 선수단 명단> <코칭스태프(19명)> 이범호 손승락 정재훈 이동길 타케시 홍세완 박기남 조재영 이현근 김상훈 방석호 조승범 박규민 박정민 정성욱 정영 조희영 박준서 황종현 <투수(16명)> 양현종 임기영 전상현 김대유 이준영 장형식 김승현 김도현 김기훈 정해영 황동하 최지민 윤영철 박도규 네일 라우어 <포수(3명)> 김태곤 한승택 한준수 <내야수(9명)> 김선빈 서건창 박찬호 이우성 변우혁 김규성 김도영 윤도현 김두현 <외야수(7명)> 나성범 최형우 고종욱 이창진 최원준 박정우 소크라테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서울 천적' 광주FC

K리그1 33R 홈경기 3-1로 승리 '서울전 3연승'... 7위 지켜



광주FC가 서울전 3연승을 달리면서 7위 자리를 지켰다. 광주FC가 6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FC 서울과의 K리그1 2024 33라운드 홈경기에서 3-1 승리를 거뒀다. 전반 28분 허을(사진)을 시작으로 이견희, 아사니가 골세리머니를 하면서 서울전 3연승을 이뤘다. 센터백으로 변신했던 허을이 최경록과 전면에서 공격에 나섰다. 전반 18분 허을이 오른쪽에서 슈팅까지 연결해 봤지만 골로 이어지지 않았고, 45분에는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최경록의 프리킥이 나왔지만 골대를 벗어났다. 후반 시작과 함께 이정호 감독이 정지훈을 불러들이고 아사니를 투입하면서 분위기를 바꿨다. 허을이 10분 허을에게 기회가 왔다. 서울 최준이 왼쪽에서 쳐내려던 공이 이희곤 맞고 허을 앞으로 향했다. 허을이 슈팅을 시도했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이어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광주의 코너킥이 진행됐다. 박태준의 크로스가 변준수의 머리를 벗어난 뒤 이번에는 최경록이 오른쪽에서 공을 띄웠다. 변준수의 머리에 맞은 공은 바운드 된 뒤 킥퍼를 넘지 못했다. 후반 28분 허을에 시선이 집중됐다. 중원에서 드리블을 하고 올라간 변준수가 전방에

있던 허을에게 패스를 했다. 허을의 오른발 슈팅이 나왔고, 바운드 된 공이 골망을 흔들었지만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다. 아쉬움은 잠시였다. 비디오 판독 끝에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허을의 시즌 2호 골이 기록됐다. 이어 이정호 감독의 교체 카드가 적중했다. 후반 31분 허을과 최경록을 불러들인 이정호 감독은 이견희와 가브리엘을 넣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견희의 집중력이 빛났다. 서울의 공을 뺏은 광주의 공세가 전개됐고, 이견희가 4명의 수비에 둘러싸인 채 마지막 슈팅까지 연결했다. 이견희의 오른발을 떠난 공은 그대로 서울 골대를 가르면서 시즌 5호골이 됐다. 2-0으로 앞선 후반 39분 서울의 '프리미어리거' 린가드가 실력 발휘를 했다. 이날 경기에서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던 린가드가 왼쪽에서 오른발로 울린 공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대로 광주 골대 오른쪽 모서리를 뚫었다. 린가드의 시즌 5호골. 그리고 후반 8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서울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막판 공세에 나섰다. 하지만 침착하게 서울의 공세를 막은 광주, 아사니가 후반 52분 쐐기골을 장식했다. 중원에서 공을 잡은 아사니가 가브리엘에게 패스를 한 뒤 전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공을 다시 받은 아사니가 문전까지 내달려 원발로 시원하게 슈팅을 날리면서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정호 감독은 "가와사키 원정 다녀와서 선수들도 코칭스태프도 많이 힘든 상황이고 힘들었는데



연패를 끊었다"며 "일본 다녀와서 느낀 점이 있다. 그라운드와 환경만 좋아진다면 우리 축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강팀하고도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 같다. 과정이 좋아서 결과도 좋았다. 선수들에게 고생했다 말해주고 싶다. 홈팬들도 많이 와주셔서 힘내서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선제골을 장식한 허을은 "평소에 센터백으로 전향하고 나서 포워드를 놓았다면 이런 결과까지 못 만들었을 것이다. 센터백 하면서도 포워드 움직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센터백 할 때 나를 엄청 골치 아프게 했던 공격수들 플레이 기억했다가, 그럴 생각하면서 한 게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준PO '장군명군' LG, KT에 7-2 역전승

LG 트윈스와 KT위즈가 원점에서 3차전 승부를 벌인다. LG가 6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4 준플레이오프(6전 3승제) 2차전에서 KT를 상대로 7-2 역전승을 거뒀다. 1차전에서 2-3패를 기록했던 LG는 이날 경기에서도 KT에 선취점을 내줬다. 2회초 KT가 황재균의 좌전 적시타로 1-0을 만들었다. 3회초에는 강병호의 좌익수 희생 플라이가 나왔다.

하지만 이후 KT는 추가 득점에 실패했고, LG가 3회말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박해민과 문성주의 연속 안타 뒤 더블 스틸로 무사 2·3루를 만든 LG는 흥행기의 2루 땅볼로 1점을 추격했다. 이어 신민재의 좌전적시타로 2-2 동점. 4회말에는 오지환의 내야 안타에 이어 1루수 송구 실책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린 LG는 박동원의 좌간 2루타로 역전에 성공한 뒤 리드를 놓지 않고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했다. 1승을 나눠진 두 팀은 8일과 9일 수원에서 3, 4차전을 벌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논두렁 잔디'에...아침경기 탄 곳서 치른다 말레이시아 조호르 다룰 탁집전 용인서 개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무대에서 연승을 달리고 있는 광주FC가 '잔디 문제'로 안방에서 3차전을 치르지 못하게 됐다. 6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22일 오후 7시 예정된 광주와 조호르 다룰 탁집(말레이시아)의 2024-2025 ACLE 리그 스테이지 3차전이 광주월드컵경기장이 아닌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다. 광주는 지난 9월 1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요코하마 F.마리노스와 리그 스테이지 1차전을 치렀다. 광주는 아시아무대 데뷔전에서 아사니의 헤트트릭을 앞세워 7-3 대승을 거두며 화제를 모았지만, 경기장 잔디 상태가 논란이 됐다. 계속된 잔디 논란에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 광주는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상태'라는 AFC의 판단에 따라 '잔디'를 사실상 원정 경기로 치르게 됐다.

대체적으로 ACLE을 홍보했던 광주와 광주시는 이번 경기장 변경으로 자존심을 구기게 됐다. 광주 구단주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직접 경기장 현장 점검에 나서 "경기에 이상이 없을 정도"라며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 ACLE 출장식에서도 '이상 무'를 이야기했었다. '광주와 광주시는 가와사키 프론탈레와의 원정 경기가 진행된 지난 2일에는 거리 응원까지 펼쳤지만 잔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의 안방에서 3차전 홈경기를 치르게 됐다. 한편 울산 HD도 23일 비셀 고베(일본)와의 3차전을 울산문수경기장이 아닌 울산종합운동장으로 이동해 치른다. 울산도 지난달 18일 가와사키와의 1차전을 안방인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진행했지만 잔디 상태가 문제가 됐다. 그나마 울산은 13km 떨어진 곳에서 3차전을 치르게 됐지만 광주는 25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 경기를 펼쳐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